

2023 리얼 오리지널



3월
실전 모의고사

고2 3월 첫 시험을 원벽 대비할 수 있도록
3월 학평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부록 제공

고2 국어

2020~2022학년도 최신 3개년 [3·6·9·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대비 고2 국어 [실전 모의고사] 1회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한 기출 모의고사
전 회분 [OMR 카드·등급 컷·정답률·학습 Check표] 수록



2023 학력 평가 + 내신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하루 80분(45문항) × 13일 완성



고2 국어·3개년 13회

차례

03월 전국연합

01회	2022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1쪽
02회	2021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7쪽
03회	2020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3쪽

06월 전국연합

04회	2022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49쪽
05회	2021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5쪽
06회	2020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81쪽

09월 전국연합

07회	2022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97쪽
08회	2021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3쪽
09회	2020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9쪽

11월 전국연합

10회	2021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45쪽
11회	2020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61쪽
12회	2019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77쪽

03월 실전 모의고사

13회	2023 학년도 3월 대비 실전 모의고사	193쪽
-----	------------------------	------

● 정답과 해설

책속의 책

모의고사를 실전과 똑같이 풀어보면
내 실력과 점수는 반드시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구성 특 전국연합 모의고사

REAL ORIGINAL

“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

수능 시험장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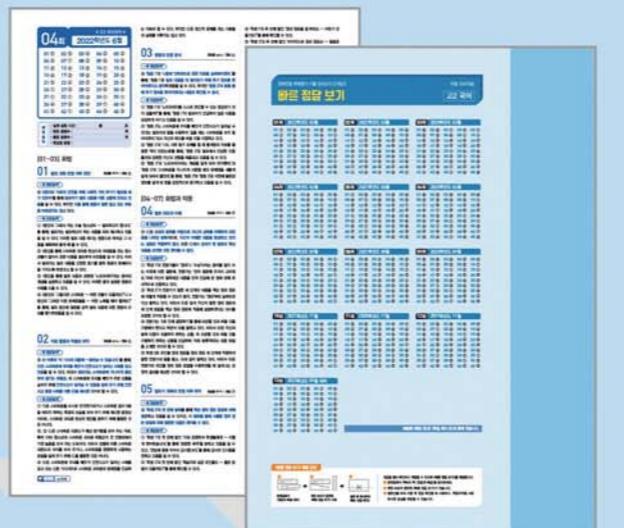
이를 최소화하려면 실제 수능 시험지와
비슷한 크기의 문제지와 OMR 카드로
시간을 절약하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고2 국어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총 13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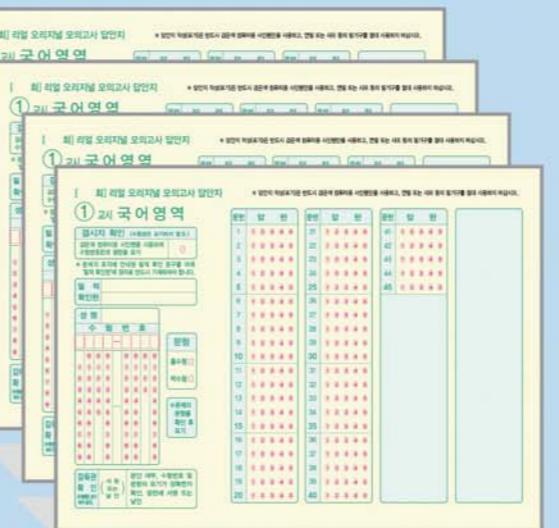
- ①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살려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②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타이머를 작동해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고2 학력평가 + 학교시험 대비

고2 3월·6월·9월·11월 시행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2 학교 내신까지 대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① 연 4회 시행되는 학력평가는 대비해 12회분 문제를 풀어 보면 실전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 ② 학교 시험에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하거나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많아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

고2 3월 전국연합 학력평과를 대비해 실전 모의고사 국어 1회분을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 ① 고2 3월 전국연합 학력평과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국어 1회분을 제공하므로 시험 전에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②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풀어보면 3월 학력평가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문항별 정답률 & 빠른 정답 체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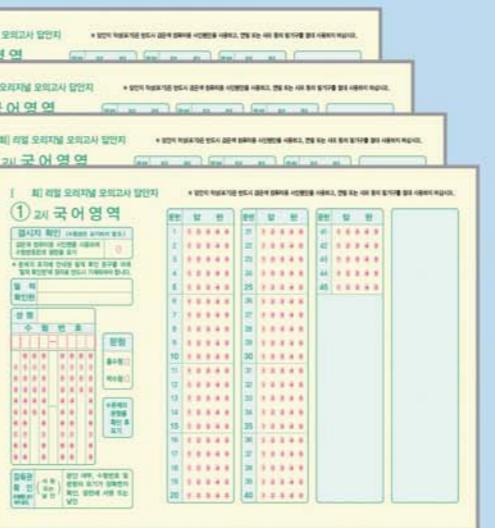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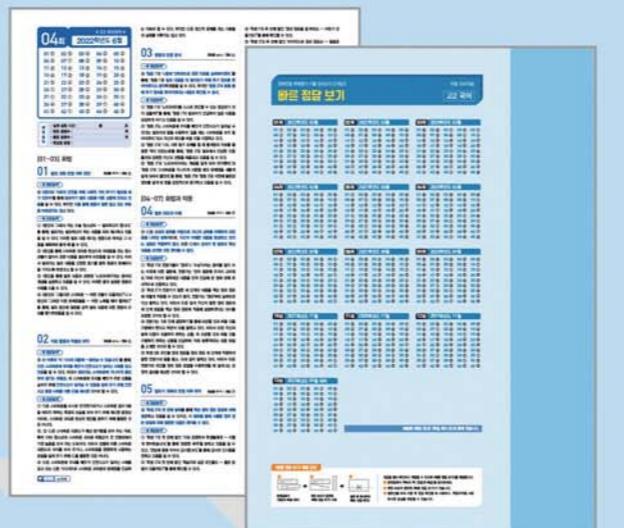
문제를 푼 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체크 표를 제공하며, 전회분 문항별 정답률까지 제공합니다.

- ① 문항별로 정답률을 제공하므로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정답과 선배들의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차별로 문제를 푼 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체크 표를 제공하여, 오려서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OMR 체크카드

정답 마킹을 위한 OMR 체크카드는 실전력을 높여주며 부록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편 뒷부분에 수록했습니다.

- ① OMR 체크카드는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모의고사에서 마킹 연습은 또 하나의 실전 연습입니다.
- ② 답을 밀려 썼을 때 교체하는 연습도 중요하며, 추가로 OMR 체크 카드가 필요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회분별 등급컷 & 명쾌한 해설 제공

문제를 푼 후 자신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급컷과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한 명쾌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 ① 회차별로 등급컷을 제공하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급컷은 학습 Check 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② 혼자서도 학습이 편리하도록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명쾌한 해설을 수록해 답답함이 없습니다.

회분별 학습 체크 & 등급컷

- ①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②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 ③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④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이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 국어영역 | 회분당 45문항

* 국어영역 배점 및 시간 : 100점 만점 / 총 80분 / 2점, 3점(3점 문항에만 표시, 표기가 없으면 모두 2점)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22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5	89	79	67	53	39	26	18
02회 2021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76	66	56	47	38	30	23	19
03회 2020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2	71	59	46	33	24	18
04회 2022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3	73	61	46	32	21	18
05회 2021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4	88	78	66	49	32	23	19
06회 2020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4	75	62	47	32	22	18
07회 2022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4	74	64	53	41	29	22	18
08회 2021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2	73	62	48	33	23	18
09회 2020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5	76	67	56	44	31	22	18
10회 2021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6	90	81	69	52	33	22	17
11회 2020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2	73	61	47	33	24	16
12회 2019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4	75	62	48	33	23	17

* 등급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 3월 학력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채점 결과	틀린 문제	시간 부족 문제
13회 3월 실전 모의고사	월 일	시 분 ~ 시 분			

〈빠른 정답 보기〉 활용 안내



- 정답을 빨리 확인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빠른 정답 보기〉**를 제공합니다.
- ① 문제집에서 책속의 책 〈정답과 해설〉을 분리하세요.
 - ② 뒷장 속표지 앞면에 **〈빠른 정답 보기〉**가 있습니다.
 - ③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정답 확인할 때 사용하고, 책갈피처럼 사용 하시면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01회

제 1 교시

- [1~3]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손동작하며) 제가 한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채팅 창의 반응을 보고) 네, 맞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공유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수어 인사입니다. 수어는 ‘수화 언어’의 준말인데요, 최근에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을 보고 수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어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요소로는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가 있습니다. 그 중 수지 기호는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등을 통해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령, 보고 계신 화면처럼 오른 손으로 원활을 쓸어내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내리면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계세요.’를 의미하는 수어 인사가 됩니다. 수지 기호에 따라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지는 데요, 다음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이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 ‘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지는 이마에 댄 채로 겹지, 중지만 펴서 흔들면 ‘경찰’을 나타냅니다. 손 모양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는 한글 자모나 숫자, 알파벳 등을 나타내기 위한 손 모양인 자화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비수지 기호는 손이 아닌 눈, 코, 입, 머리 등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미를 나타내거나 문장 형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손으로 턱을 쓰다듬어 내리는 ‘행복’이라는 수어 동작을 할 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범을 보이며) 반대로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손동작을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채팅 창을 보며) 네, 맞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비수지 기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수지 기호는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행복’을 의미하는 손동작과 함께 눈썹을 올리며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당기면 ‘행복하니?’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어의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참고한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수어 통역사 ○○의 인터넷 수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수어 인사를 하며 마칠까요? (채팅 창을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하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알려 드린 수어 인사를 하면 됩니다. (수어 인사를 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를 시작하며 발표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② 발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③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며 주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시범을 보이며 발표를 진행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 ⑤ 발표를 마무리하며 추가 정보의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어 인사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지 기호의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수지 기호에 따라 수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자료 3]을 활용하여 비수지 기호만으로 ‘행복하니?’라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수어 동작을 직접 따라 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축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안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수어 인사를 넣어야겠어. ‘사랑’을 뜻하는 수어를 넣고 싶은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찾아봐야겠어.
학생 2: 방송에서 보았던 수어 통역사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했는데, 수어에서 표정이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군!

- ① 학생 1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있다.
- ③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4~7] (가)는 교지 편집부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회의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편집부장: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교지 특집 기사의 제재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이 선호도가 높았어. 오늘은 이 중 하나를 선정하고 기사로 구성할 내용에 대해 협의해 보자. 어떤 제재가 좋을까?

학생 1: 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제재가 더 좋아.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는 환경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지구 온난화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아.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평소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 왔어. 오히려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디지털 기기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면 좋겠어.

편집부장: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유익한 기사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떤 내용들로 기사를 구성하면 좋을까?

학생 1: 먼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좋겠어. 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거야.

학생 2: 맞아.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편집부장: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B]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학생 2: 동의해. 나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거든. 막연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앞당긴다는 내용보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좋아. 그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편집부장: 그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 보자. 내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어.

학생 2: 그러면 불필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 줄여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

학생 1: 맞아. 또 누리 소통망이나 인터넷에 불필요한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

편집부장: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메일함이나 블로그에서 이를 수시로 삭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

학생 1, 2: 그게 좋겠다.

편집부장: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보자.

(나)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우리는 흔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산화 탄소의 주요 배출원이 공장이나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탄소 발자국'이라는 지표를 사용해 왔는데,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국제 환경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보급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 정도에서 204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떻게 이산화 탄소 배출을 늘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나 LTE,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는 모두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저장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때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이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인 우리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데이터 센터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메일 계정이나 포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이메일, 인터넷 게시물,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불필요한 전화 통화, 이메일이나 메시지의 송수신, 인터넷 검색 등을 줄여 네트워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형성한다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의 '편집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해야 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② 상대 의견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회의 중간중간에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다.
- ④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제안하고 있다.
- ⑤ 상대 의견의 실현 가능성은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이고, [B]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화이다.
- ② [A]는 기사 작성의 방법을 협의하는 대화이고, [B]는 기사에 포함될 정보를 선정하는 대화이다.
- ③ [A]는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이고, [B]는 기사에 담을 내용 요소를 생성하는 대화이다.
- ④ [A]는 회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대화이고, [B]는 회의 참가자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대화이다.
- ⑤ [A]는 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이고, [B]는 기사 내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대화이다.

7. <보기>는 학생들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환경부 자료

구분	이메일	전화	데이터	종이컵	승용차
이산화 탄소 배출량	4g (1통)	3.6g (1분)	11g (1mb)	11g (1개)	14g (100m)

ㄴ. 신문 기사

2010년 112개였던 국내 데이터 센터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158개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3년까지 47개소가 늘어난 205개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ㄷ. 전문가 인터뷰

코로나 19 유행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빈번하게 송수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량을 증가시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 탄소가 일회용품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야겠어.
- ② ㄴ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야겠어.
- ③ ㄷ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용량 자료의 송수신을 줄이자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ㄱ, ㄴ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⑤ ㄴ, ㄷ을 활용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의 수와 디지털 기기 사용 양상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유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급증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 일상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를 담은 글을 쓴다.
- * 문학 동아리 합평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수정한다.

[초고]

앞집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봄이다. 이런 봄날의 산책은 숲길이 제격이다. 집을 나서 자마자 수성동 계곡에서 시인의 언덕까지 오늘 산책길을 마음에 그렸다.

수성동 계곡까지는 골목 오르막길을 따라 잠깐 걸으면 된다. 봄비가 엊그제 내려서 제법 물소리가 또랑또랑하게 흐른다. 수성동 계곡은 인왕산 동쪽에서 우리 동네 쪽으로 흐르는 계곡인데, 흰 암반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은근히 가슴이 뿌듯하다. 조선 후기의 화가인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해맞이 동산 숲길에는 싱그러운 봄의 정취가 가득하다. 산들바람에 꽃눈을 매단 조팝나무 가지가 한들거린다. 산들바람이 지나는 길을 따라 풀들이 파릇파릇 잎을 내밀고, 개나리랑 진달래도 벌써 환하게 꽃물이 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새봄이 돌아나고 있다.

가온다리를 건너다 보니 길이는 짧지만 우쭐우쭐하게 출렁거린다. ‘가온’은 ‘중간의’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흔들리는 다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보라는 뜻인가 보다. 가온다리를 지나면 두꺼비 바위와 이빨 바위를 만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면 그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잠시 멈춰 바라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두꺼비 바위는 얼굴 생김새가 정말 두꺼비 같고, 이빨 바위는 딱딱 소리를 낸 것 같다.

이제 시인의 언덕이 멀지 않다. 수성동 계곡에서 시인의 언덕으로 오르는 숲길은 가파르지는 않지만, 나무 계단이 많은 오르막의 연속이다. 오르막을 오를 때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남들의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내 호흡과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리가 빠근하고 조금 숨이 차지만 웬지 마음이 달큼하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 시인은 이 시인의 언덕에 올라 시심을 다듬었다고 한다. 언덕 곁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서 있다. 이곳은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하여 만들었다.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는 수도 가압장을 문학관으로 꾸민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난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오르면 내 영혼의 가압을 느낀다.

8.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묘사를 통해 글쓴이가 바라본 경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지명의 유래를 소개하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있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 장소의 이동에 따른 글의 내용 구성

집	· 앞집 담장 너머의 산수유 꽃을 봄. … ① · 봄날의 산책은 숲길이 좋겠다고 생각함.
↓	
수성동 계곡	· 계곡의 물소리를 들음. · 아름다운 경치에 뿌듯함을 느꼈음. … ②
↓	
해맞이 동산	· 조팝나무, 개나리, 진달래를 봄. … ③ · 숲길에서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느낌.
↓	
가온다리와 바위들	· 출렁거리는 다리를 건넜음. · 두꺼비 바위에서 위압감을 느낌. … ④
↓	
시인의 언덕	· 시인의 언덕까지 오르막을 천천히 걸음. · 조금 숨이 차지만 마음이 달큼함. … ⑤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10. <보기>의 합평회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부원 1: ‘영혼의 가압’이라는 표현이 참신하게 느껴져.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아.

부원 2: 너와 함께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어. 글을 마무리할 때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을 드러내면 더 좋겠어.

- ① 시인의 언덕에 오르니 마음의 균육에 힘줄이 선다. 집에 돌아 오니 마음의 뜨락에 봄의 생기가 넘친다.
- ② 시인의 언덕에 올 때마다 마음이 순수해진다. 시인의 ‘서시’ 한 구절을 읊조리며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다.
- ③ 수도 가압장에서 우러러본 하늘이 매우 파랗다. 시인의 언덕은 재충전의 기회와 용기를 주는 영혼의 가압장이다.
- ④ 시인의 언덕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집으로 다시 산책을 이어 간다.
- ⑤ 시인의 언덕은 나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보여 준다. 나는 수도 가압장에서 내 영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느낀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으)시-’나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잡수다’, ‘계시다’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도 선어말 어미 ‘-(으/으)시-’로 실현되었으며, 이는 ‘-(으/으)샤-’로도 나타났다. 또한 ‘좌시다’, ‘거시다’ 등의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도 존재하였다.

주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거나 사회적 지위 등이 화자보다 높을 때 실현된다. 하지만 주체와 청자의 관계, 담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라도 높이지 않거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도 [A] 높이기도 한다. 가령 방송과 같은 공적 담화에서는 객관성을 고려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등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인, 문장의 목적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나 ‘모시다’, ‘여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나 ‘피시다(모시다)’, ‘열좁다’ 등의 특수 어휘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 ‘-습-’, ‘-습-’ 등으로도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은 주로 ‘-습니다’, ‘-아라/-어라’ 등의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 또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되었지만, 현대 국어와 달리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 ‘-잇-’이 존재했다. 선어말 어미 ‘-이-’는 평서형에서, ‘-잇-’은 의문형에서 각각 나타나며 상대를 아주 높일 때 사용되었다.

1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아버지께)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십니다.
ㄴ. (방송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ㄷ. (수업에서 선생님이) 발표할 어린이는 손 드시면 됩니다.
ㄹ. (어린 손자에게) 너희 엄마는 언제 출근하셨나?
ㅁ. (할아버지께)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 ① ㄱ에서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② ㄴ에서는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해 ‘세종대왕’을 높이지 않고 있다.
- ③ ㄷ에서는 수업이라는 담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 ④ ㄹ에서는 주체인 ‘엄마’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를 고려해 ‘엄마’를 높이고 있다.
- ⑤ ㅁ에서는 주체인 ‘아버지’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a. [중세 국어] 大師(대사) 旱 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잇고 [현대 국어] 대사가 하신 일이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b. [중세 국어] 이 도늘 가져가 어마니물 供養(공양) 旱 습고 [현대 국어] 이 돈을 가져가 어머님을 공양하고
c. [중세 국어] 太子(태자) 를 빼려 안수바 부인의 되셔 오니 [현대 국어] 태자를 싸 안아 부인께 모셔 오니

- ① a: 중세 국어에서는 ‘-샤-’를, 현대 국어에서는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대사’를 높이고 있다.
② a: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잇-’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③ b: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습-’을 사용하여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다.
④ c: 중세 국어에서는 ‘의’를, 현대 국어에서는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부인’을 높이고 있다.
⑤ c: 중세 국어에서는 ‘되셔’를, 현대 국어에서는 ‘모셔’를 사용하여 주체인 ‘태자’를 높이고 있다.

13. <보기>의 ⑨, ⑪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Hong’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Hong’의 음운 변동에는 ‘Hong’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Hong’이 다른 음운과 합쳐져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 ‘Hong’이 없어져 발음되지 않는 탈락이 있다. 가령 ‘놓친[논친]’은 ‘Hong’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Hong'의 음운 변동			
유형	교체	축약	탈락
예	놓친[논친]	⑨	⑪

- | | |
|-----------|--------|
| ⑨ | ⑪ |
| ① 좋고[조:코] | 당아[다아] |
| ② 좋고[조:코] | 쌓네[싼네] |
| ③ 넣는[년:는] | 당아[다아] |
| ④ 넣는[년:는] | 쌓네[싼네] |
| ⑤ 좁힌[조핀] | 닳지[달치] |

14.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아래의 예문을 봅시다.

(1) 외국에 있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네가 오늘 말한 책이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



(1) 외국에 있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내가 어제 말한 책이 거기 있다고 말했다.

(1)은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전한 직접 인용이고, (1)은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한 간접 인용입니다. (1)이 (1)으로 바뀌면서 인정 대명사, 시간 표현, 지시 표현이 ‘나’, ‘어제’, ‘거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종결 어미 ‘-어’가 ‘-다’로,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의 조사 ‘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는지 분석해 볼까요?

[자료]

직접 인용	외국에 있는 형이 어제 전화로 “나는 내일 이곳에서 볼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아.”라고 말했다.
-------	---



간접 인용	외국에 있는 형이 어제 전화로 자기는 오늘 그곳에서 볼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	---

- ① ‘나’는 앞서 언급한 형을 다시 가리키므로 인정 대명사 ‘자기’로 바르게 바꿨군.
- ② ‘내일’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늘’이 아닌 ‘어제’로 바꿔야겠군.
- ③ ‘이곳’은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형이 있는 곳을 가리키므로 ‘그곳’으로 바르게 바꿨군.
- ④ 직접 인용에 쓰인 종결 어미 ‘-아’를 간접 인용에서 종결 어미 ‘-다’로 바르게 바꿨군.
- ⑤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이므로 간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 ‘고’로 바꿔야겠군.

15. <보기>의 ⑦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부정 표현 ‘-지 않다’는 줄여서 ‘-잖다’로 적을 수 있다. ‘시답다’에 ‘-지 않다’가 결합하여 ‘시답잖다’로 줄어든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잖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⑦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① 사촌 동생의 지나친 장난은 달갑잖아.

② 그때 거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잖아.

③ 당신을 믿기에 이번 도전도 두렵잖아요.

④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날부럽잖아.

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 성과가 적잖아요.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우탁 -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년 산 바라보니 거며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위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흘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⑦ 밟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낫이련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거며희뜩: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뜻은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삼[麻]의 줄기.

(다)

고개를 넘어, 산허리를 돌아내렸다. 산 밑이 바로 들, 들은
그저 논뿐의 연속이다. 두렁풀을 말끔히 깎았다. 논배미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하여 백리금파(百里金波)*를 이루었다.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는 더벅머리 폐가 있다. ‘우여, 우여’
소리를 친다. 혹 ‘꽝꽝’ 석유통을 두드리기도 한다. 참새들을
쫓는 것이다.

참새들은 자리를 못 붙여 한다.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벅머리
폐가 ‘우여’ 소리를 쳤다. 참새 폐가 와르르 날아갔다. 천 마리는
될 것 같다. 날아간 참새들은 원을 그리며 저편 논배미에 앉아
본다. 저편 애놈들은 날아 앉은 새 폐를 보았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을 두들긴다. 일제히,

“우여!”

소리를 친다. 이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담력이 참새의 작은
심장에 있을 수가 없다. 참새들은 앓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나래를 쳐야 한다. 어디를 가도 ‘우여 우여’가 있다. ‘꽝꽝’이
있다. 참새들은 쌀알 하나 넘겨 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우여,
우여’, ‘꽝꽝’ 속을 헤매는 비운아들이다. 사실 애놈들도 고달
풀 것이다.

나와 내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뚝이 하나를 냈다.
“애들아, 너들 이리 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뚝이’를 내 들고 애놈들을 불렀다.

애놈들이 모여들었다.

“애들아, 이놈의 대가리를 요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요 모양
으로 누운 채 있단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이놈을 쑥 놓기
만하면 요것 봐라, 요렇게 발딱 일어선단 말이야.”

나는 두서너 번 오뚝이를 눌렀다 일으켰다 하였다.

“이것을 너들에게 줄 테다. 한데 씨름들을 해라.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마.”

18.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곤한 나래’를 통해 아이들의 훼방으로 인해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매며 힘겨워하는 참새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흑사병 같’다는 것을 통해 참새를 내쫓는 소리가 참새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애놈들도 고달풀 것이다’에서 쌀알 하나 못 먹게 참새를 쫓아
야 하는 더벅머리 폐의 처지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다.
- ④ ‘씨름들을 해라’라 하며 상으로 내건 오뚝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 ⑤ ‘저급한 정열’이라 표현한 것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승부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애놈들은 날래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 어찌어찌 두 놈을
붙여 놓았다. 한 놈이 아냥기*에 걸려 떨어졌다. 관중은 그동
안에 열이 올랐다. 허리띠를 고쳐 매고 자원하는 놈이 있다.
사오 승부가 끝났다. 아직 하지 못한 애놈들은 주먹을 쥐고 제
차례 오기를 기다렸다.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정열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다. 나는 씨름의 폐회를 선언하고
우승자에게 오뚝이를 주었다. 참새들은 그동안에 배가 불렀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천석꾼이의 벼 두 놈을 횡령하고 재산의 철 전
가량을 손(損)하였다. 천 마리의 참새들은 ⑦ 오늘 밤 오래간
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 김상용, 「백리금파에서」 -

* 백리금파: 백 리에 걸친 금빛 물결.

* 아냥기: 씨름 기술인 ‘안다리 걸기’의 평안도 사투리.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② (나)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긍정
적인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의 추이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작중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해학은 제시된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그것이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하는 인지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해학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상황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있다. 상황적 요소는 상황의 반전, 상황의 부조화, 상
황의 전이 등을 통해, 언어적 요소는 과장과 희화화,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을 ‘가시’와 ‘막대’로 막으려는
상황이 부조화를 이루며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임’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추리 삼대’로 밝혀지며
상황이 반전되는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뚝이’를 쟁취하기 위한 씨름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전이되며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름길로
오더라도’, (나)에서 ‘참새’에게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해 준 일을
'벼 두 놈을 횡령' 한 것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벼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다)에서 ‘우승자’가 오뚝이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 희화화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이는 17세기 과학 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④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장을 제시하였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이는 합리성이라는 ⑤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⑥ 귀결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질망을 감당해야 했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轉化)*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⑦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암만의 짙이 자라난다.”라며 애도하였다.

* 알레고리 : A를 말하기 위해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A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 전화 : 절적으로 바뀌어서 달리 됨.

(나)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그러나

이성을 ⑧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

표현주의는 한 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표현주의는 ⑨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아방가르드 :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③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은 설명하고 있다.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1 교시 국어영역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1	2	3	4	5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감독관 확인 (수험은 표기하지 말것)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20	1 2 3 4 5	20

문번 답 란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문번 답 란

41 1 2 3 4 5

42 1 2 3 4 5

43 1 2 3 4 5

44 1 2 3 4 5

45 1 2 3 4 5

리얼 오리지널 고2(3개년)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1 교시 국어영역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1	2	3	4	5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감독관 확인 (수험은 표기하지 말것)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20	1 2 3 4 5	20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 고2 국어영역 ●									
01 회		2022학년도 3월							
01 ①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①	07 ④	08 ①	09 ④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②					
26 ①	27 ①	28 ③	29 ①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35 ①					
36 ⑤	37 ③	38 ③	39 ④	40 ⑤					
41 ④	42 ②	43 ④	44 ①	45 ④					

체	실제 걸린 시간 :	분	초
점	맞은 문항수 :	개	
결	틀린 문항수 :	개	
과	헷갈린 문항 :	개	

[01~03] 화법

01 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률 93%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1문단을 통해 발표자가 발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발표 주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문단을 통해 발표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② 1문단에서 발표자는 질문을 던진 뒤 「채팅 창의 반응을 보고」네, 맞습니다.'와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도 발표자는 질문을 던진 뒤 「채팅 창을 보며」네 맞습니다.'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발표자는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 중에 채팅 창에 올라온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발표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발표자는 수여 인사 캠페인을 본 경험을 언급하면서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발표자는 「행복」과 「행복하니?」에 대한 수여 동작을 소개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 청중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발표자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참고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청중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2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률 53% | 정답 ④

• 왜 정답일까?

④ 3문단의 「화면에서와 같이 '행복'을 의미하는 ~ '행복하니?'라는 의문문이 됩니다.'를 통해, 발표자는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를 결합하여 [자료 3]의 「행복하니?」라는 의문을 지닌 수어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비수지 기호만으로 「행복하니?」라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일까?

① 1문단을 통해 발표자가 [자료 1]을 제시하면서 수여 인사 동작을 소개하는 발표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발표자가 수지 기호의 요소를 소개하면서 [자료 1]의 수여 인사 동작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발표자는 수지 기호인 손 모양의 차이에 따라 수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자료 2]의 「닭」과 「경찰」의 예를 들어 알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발표자가 [자료 3]을 제시하면서 청중들이 자료의 동작을 직접 따라 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청중 반응의 이해

정답률 95% | 정답 ②

• 왜 정답일까?

② 학생 2는 수여에서 비수지 기호가 의미를 나타내거나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발표 내용을 듣고, 수여 통역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은 뒤 발표 내용을 축제 공연의 안무 구성에 적용하여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발표자가 소개한 방법을 통해 수여 단어를 찾아보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1의 반응을 통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학생 1과 학생 2의 반응을 통해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학생 1과 학생 2의 반응을 통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학생 1과 학생 2의 반응을 통해 발표를 듣고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정보를 수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4~07] 화법과 작문

04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률 45% | 정답 ③

• 왜 정답일까?

③ (가)에서 편집부장은 교지의 기사로 실을 제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구성될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를 통해 편집부장이 회의 중간중간에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하여 정리한 말은 찾아볼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① 첫 번째 말을 통해 편집부장이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이번 회의에서 협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 말을 통해 편집부장이 「디지털 탄소 줄이기」라는 제재가 더 적합하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 제재가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세 번째 말을 통해 편집부장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섯 번째 말을 통해 편집부장이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 제한」이라는 방법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면서, 학생이 자신의 메일함이나 블로그에서 상업 광고나 게시물을 수시로 삭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대화의 성격 파악

정답률 92% | 정답 ③

• 왜 정답일까?

③ [A]에서는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지에 실을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B]에서는 제재로 선정된 「디지털 탄소 줄이기」와 관련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자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 요소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B]를 통해 기사에 포함될 정보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A]에서 회의 참가자 사이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를 통해 기사 작성의 방법에 대한 협의는 찾아볼 수 없다.

• 왜 오답일까?

① [B]의 「맞아, 좋은 생각이야. 동의해.」를 통해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A]에서 회의 참가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좇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B]를 통해 기사에 대한 협의는 찾아볼 수 없다.
④ [B]에서 기사에 포함될 정보에 대한 협의는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서는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B]를 통해 기사 내용에 대한 회의 참가자들의 상반된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06 작품에서의 반영 여부 판단

정답률 85% | 정답 ①

• 왜 정답일까?

① (나)의 1문단에 자동차, 공장과 같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가)에서 언급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주요 배출 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② 학생 1은 발표를 들은 뒤 발표 내용을 축제 공연의 안무 구성에 적용하여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발표자가 소개한 방법을 통해 수여 단어를 찾아보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1의 반응을 통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학생 1과 학생 2의 반응을 통해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학생 1과 학생 2의 반응을 통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왜 정답일까?

⑤ (가)의 「학생 1의 말을 통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2문단을 통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⑥ 학생 1과 학생 2의 말을 통해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을 통해 현재 2% 정도인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2040년에는 14%를 넘어서설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⑦ (가)의 「편집부장의 말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데이터 센터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⑧ (나)의 1문단의 「'노란 꽃망울', 2문단의 '불비가 ~ 또랑또랑하게 흘른다.', 3문단의 「산들바람에 꽃눈을 ~ 꽃물이 돈다.」 등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불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⑨ 3문단에서 해맞이 동산 숲길의 「조팝나무', 「풀들」, 「개나리」, 「진달래」의 모습을 묘사하여 글쓴이가 본 경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⑩ 2문단에서 수성동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를 소개하여 장소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⑪ 1문단에서 「'세계 농민 대상'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업에서는 공적인 담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주체인 「어린이」는 화자인 선생님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업이라는 공적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에게 「-시-」가 사용된 「드시면」을 통해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⑫ 2문단에서 「'세계 농민 대상'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업에서는 공적인 담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주체인 「어린이」에게 「-시-」가 사용된 「드시면」을 통해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⑬ 1문단의 「'앞집 담장 ~ 꽃망울을 터트렸다.'를 통해 ①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⑭ 2문단의 「'이곳을 저날 ~ 아름답기 때문이다.'를 통해 ②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의 「'산들바람에 꽃눈을 ~ 꽃물이 돈다.'를 통해 ③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⑮ 5문단의 「'나리가 빠르고 ~ 마음이 달큼하다.'에 ④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⑯ 1문단의 「'앞집 담장 ~ 꽃망울을 터트렸다.'를 통해 ①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⑰ 2문단의 「'이곳을 저날 ~ 아름답기 때문이다.'를 통해 ②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⑱ 3문단의 「'산들바람에 꽃눈을 ~ 꽃물이 돈다.'를 통해 ③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⑲ 5문단의 「'나리가 빠르고 ~ 마음이 달큼하다.'에 ④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⑳ 「'시인의 언덕에 ~ 마음이 순수해진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을 표현해야 험파'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①로, ①의 「시인의 언덕에 ~ 힘들어 선다.」에서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이 넘친다.」에서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⑳ 「'시인의 언덕에 ~ 마음이 순수해진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⑳ 「'시인의 언덕은 ~ 영혼의 가암장이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⑷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⑳ 「'나는 수도 가입장에서 ~ 흐르는 것을 느낀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⑵ 「'나는 수도 가입장에서 ~ 흐르는 것을 느낀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왜 오답일까?

⑳ 「'나는 수도 가입장에서 ~ 흐르는 것을 느낀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⑶ 「'나는 수도 가입장에서 ~ 흐르는 것을 느낀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⑳ 「'나는 수도 가입장에서 ~ 흐르는 것을 느낀다.'에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⑷ 「

로 달려 나가는 것을 통해 공간 이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가 임이 아니라 '주추리 삼대'라는 것을 알게 된 후의 실망감이 드러나므로 화자의 정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가)를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은 찾아볼 수 없다.

17 시어에 담긴 의미 이해

정답률 90% | 정답 ⑤

⑤ 의 '님'은 '남 웃길 뻔'한 '낮'과 대조되는 시간으로, ①은 '주추리 삼대'가 임인 줄 알고 뛰어간 자신의 행동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⑤의 '오늘 밤'은 글쓴이가 아이들의 관심을 떠나 끌어 그 시간 동안 배불리 먹은 침새들이 '배부른 꿈을 꾸' 수 있는 시간에 해당 하므로, 글쓴이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왜 정답일까?

- ①은 임을 만난 시간이 아니며, ⑤은 수확을 끝낸 희열과는 관련이 없다.
- ②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살펴보기 어려운 시간으로, ⑤은 글쓴이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은 화자 자신이 착각을 하여 행동을 실수한 시간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시간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⑤은 침새에게 도움을 준 시간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 ④은 여전히 임이 오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므로 화자가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⑤은 글쓴이가 내적 갈등으로 고민을 느끼는 시간이라 볼 수 없다.

18 글쓴이의 모습 이해

정답률 69% | 정답 ④

④ 씨름을 하는 장면 뒤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아이들에게 상으로 오뚝이를 내건 이유는 아이들의 관심을 둘려서 아이들이 침새 끊는 일을 멈추게 하여 침새들이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오뚝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72% | 정답 ⑤

⑤ (나)에서는 임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하동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으므로 웃음을 유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 오뚝이를 상으로 받은 '우승자'의 모습을 과장하여 희화화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①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을 '가시'와 '막대'로 막으려는 상황은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부조화'에 해당 하므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임'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추리 삼대'로 밝혀지는 상황은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반전'에 해당하므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아이들이 '침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뚝이'를 생쥐하기 위한 씨름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데, 이는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전이'에 해당 하므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의 '백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발'

- 비문학 복합 •
 • (가)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계동의 변증법'
 • (나) 하요 뒤히팅, '표현주의'

20 내용 전개상 공통점 파악

정답률 57% | 정답 ③

• 왜 정답일까?

③ (가)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가), (나)를 통해 근대 사회의 문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분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에서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한 아도르노의 주장이 제시될 뿐,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나)에서는 아도르노의 생각이, (나)에서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아도르노의 생각이, (나)에서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을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 ⑤ (가)를 통해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21 인용된 말의 의도 파악

정답률 80% | 정답 ②

• 왜 정답일까?

② 아도르노가 말한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암만의 싹이 자라난다.'에서 '암만의 싹'은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⑤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가)를 통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가)를 통해 인간이 신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성의 힘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 이성의 힘이 약화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2 구체적인 자료에의 적용

정답률 82% | 정답 ②

• 왜 정답일까?

② (가)를 통해 아도르노가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일례고리로 보고 그 과정, 즉 '자연에 대한 째 - 인간에 대한 째 -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째'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인간을 유품화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침새에게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해 준 일을 '횡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재치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아이들이 '침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뚝이'를 생쥐하기 위한 씨름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데, 이는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전이'에 해당하므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의 '백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발'

돛대에 묶은 것은 노랫소리에 이끌리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억압한 것이라도 이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섬을 무사히 지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3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

정답률 90% | 정답 ③

• 왜 정답일까?

③ (가)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가), (나)를 통해 근대 사회의 문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분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에서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한 아도르노의 주장이 제시될 뿐,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나)에서는 아도르노의 생각이, (나)에서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아도르노의 생각이, (나)에서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을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 ⑤ (가)를 통해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가)와 (나) 모두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24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정답률 73% | 정답 ④

• 왜 정답일까?

④ (나)의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표현주의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회화의 전통을 거부하고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⑤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 ① (가)를 통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가)를 통해 인간이 신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성의 힘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 이성의 힘이 약화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⑥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⑦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⑧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⑨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⑩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⑪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⑫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⑬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⑭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⑮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⑯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⑰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⑱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⑲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⑳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㉚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㉛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㉜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㉝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㉞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㉟ (가)에서 아도르노는 인간

FESTA

What?

FESTA 01 고1, 고2, 고3 전교목 ALL 9,900원
 FESTA 02 고1, 고2 3개년 국어·영어·수학 [3월 실전 모의고사] 제공
 FESTA 03 고1, 고2, 고3 영어 ALL [회차별 영단어장 색~다] VOCA 제공
 FESTA 04 고3 5개년 국어·영어·수학 [3월 학력평가 대비] 기출문제 PDF 제공

515

2006~2022 「515만부 판매」 수능기출 베스트셀러

2023 리얼 오리지널 Series [전과목 9,900원]

고1 예비

- 예비 고1 전과목 | 반배치고사 +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21회
- 예비 고1 전과목 |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21회

고1 3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 수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 통합 사회·과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36회

고2 3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 수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고3 3개년 [수능 3회+모의평가 6회+전국연합 6회]

- 국어 [공통+회법과 작문]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 국어 [공통+언어와 매체]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 영어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 수학 [공통+화률과 통계]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 수학 [공통+미적분]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 수학 [공통+기하] | 수능기출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15회

고1·고2 4개년

- 고1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5회
- 고1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5회
- 고2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5회
- 고2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5회

고1·고2·고3 5개년 영어 독해

- 고1 영어 독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8회
- 고2 영어 독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8회
- 고3 영어 독해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18회

고3 5개년 [수능 5회+모의평가 10회]

- 국어 [화법과 작문]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 국어 [공통+언어와 매체]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 영어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 수학 [공통+화률과 통계]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 수학 [공통+미적분]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 수학 [공통+기하] | 6·9·수능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5개년 15회

고3 국어 | 선택과목

- 국어 [화법과 작문]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7회
- 국어 [언어와 매체]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7회

고3 5개년 | 사회·과학

- 생활과 윤리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5회
- 사회·문화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5회
- 생명과학 I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5회
- 지구과학 I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5회

고3 5개년 | 영어 듣기

- 영어 듣기 | 수능기출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35회(+Dictation)

 SCAN ME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 오리지널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3회 [고2 국어]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 발행일 2022년 10월 24일 등록번호 제 2017-0022호

홈페이지 www.ipstif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용구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혜민 임명선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혜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별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입시플라이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정가 9,900 원